

일상생활요인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the Daily Living Factor on the Satisfaction of Life for the Aged

리해근, 하규수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노인복지학과

Hae-Gun Rhee(tkma5055@hanmail.net), Kyu-Soo Ha(ksh@hoseo.edu)

요약

본 연구는 노인의 일상생활요인(사회적지지, 경제상태, 건강상태, 여가활동, 의사소통, 소비활동)이 영역별 삶의 만족도(자아존중, 대인관계, 정서상태, 신체건강,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 2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및 t-test, ANOVA, 분산분석 등을 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는 성별을 제외한 분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일상생활요인과 영역별 삶의 만족도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노인의 일상생활요인이 영역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자아존중 만족도는 사회적 지지와 여가활동이 영향요인으로, 대인관계 만족도와 신체건강만족도의 경우 사회적지지, 여가활동 및 건강상태가 영향요인이었고, 정서상태만족도는 의사소통, 경제생활 만족도는 경제상태, 의사소통 및 소비활동이 영향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중심어 : | 노인 | 일상생활 | 영역별 삶의 만족도 |

Abstract

In this study, I tried to find out the effect of the daily living factors(social support, economical status, health condition, leisure activity, communication, consumption activity) on the element life satisfaction(self-respect, personal relations, emotional condition, physical health, consume activity) of life for the aged. For the study, I collected 280 samples from people of 60 year-old adults who reside of in Gyeonggi-do. I used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multi-regression, t-test, ANOVA with SPSS 18.0.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atisfaction about aged population sociological character level of significance were difference in factors except gender, statistically. Second, daily living factors and element satisfaction between analysis positive relation. Third, Aged of daily living factors effect to element satisfaction, social support and leisure activity effect to self-respect, are social support, health condition, leisure activity effect to personal relations and physical health satisfaction. and communication effect to Emotional condition and economical status, communication and consume activity effect to economical living satisfaction.

■ keyword : | The Aged | Daily Lying | Element Life Satisfaction |

I. 서론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미 지난 2000년부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10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11.0%에 이르게 되었다.

최근 통계에서 우리나라 사람의 기대수명은 남자가 76.8세, 여자가 83.8세로 예측[1]하였는데, 이와 같이 기대수명과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고령화 사회에서 얼마나 오래 사는가 하는 문제보다 어떻게 오래 사는가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노인의 삶의 만족도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에 들어서서 비교적 활발하게 시작되었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영역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반적인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분석에 국한됨으로서 영역별 만족도를 파악할 수 없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2]. 일부의 연구에서 영역별 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있었으나 전반적 만족도와 영역별 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성격변인에 두었다[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일상생활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독립변수로 노인의 인구학적 특성과 노인의 일상생활 중 가장 밀접한 요인인 사회적지지, 경제상태, 건강상태, 여가활동, 의사소통 및 소비활동을 도출하였으며, 종속변수인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영역별로 자아존중 만족도, 대인관계 만족도, 정서상태만족도, 신체건강만족도 및 경제생활 만족도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서 영역별 만족도에 미치는 인구사회학적특성과 일상생활의 요인을 파악하여 적용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부족한 점을 보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노인의 영역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생활요인에 관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노인의 일상생활요인(사회적지지, 경제상태, 건

강상태, 여가활동, 의사소통, 소비활동)과 삶의 만족도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셋째, 노인의 일상생활요인(사회적지지, 경제상태, 건강상태, 여가활동, 의사소통, 소비활동)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삶의 만족도

노인들의 삶의 만족과 관련한 연구들로는 성, 연령, 학력, 종교 등 개인적 특성과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연구[4]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을 살펴보는 연구[2]등이 있었다. 종전의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전반적인 측정과 함께 Felce와 Perry[5]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영역별로 신체, 물질, 사회, 정서, 그리고 생산 영역만족도의 5개 하위척도를 구성하였다. 또한 정명숙[6]은 노인들이 삶 전반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과 삶의 여러 영역에서 느끼는 만족감을 동시에 측정 하였다. 지금까지의 이러한 만족도의 연구는 대부분 특정 독립변인이 노인의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 측정에 한정되어 있다. 한편 오늘날의 노인은 단순히 은퇴하여 여생을 보내는 차원을 벗어났다. 최근의 노인에게 대한 호칭 문제만 하더라도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사회공헌일자리 지원 등을 통한 국가 성장률 유지 및 복지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고령자 및 준 고령자 명칭을 장년으로 변경하고, 장년이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제화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7]. 따라서 노인의 만족도 면에서도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하는 차원을 탈피하여 보다 차별화된 만족요인을 도출하는 것이 요구된다. 예컨대 이제는 건강과 물질의 문제를 넘어서 노인 자신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더욱 활발해진 노년사회에서는 가족을 포함한 대인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만족도, 대인관계만족도이외에, 정서상태만족도 신체건강만족도, 경제생활만족도로 영역별 만족도를 세분화하여 살펴보

았다.

1.1 자아존중만족도

자아 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하여 형성하고 유지하는 평가 또는 가치판단'이라하였으며[8], 김남희, 최수일[9]은 신체적 특성의 일상생활능력과 신체기능, 사회적 특성의 종교활동과 사회활동이 여성노인의 자아 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1.2 대인관계만족도

대인관계는 소수인, 일반적으로 두 사람 이상의 관계를 의미하며 개인이 타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라고 정의한다[10]. 따라서 우리가 사회를 어떠한 시각으로 보든지 대인관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누구나 여러 형태로 끊임없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11].

1.3 정서상태만족도

정서상태는 크게 외로움과 우울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개인이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주관적인 정서 상태를 의미 하는데[12], 김옥수, 백성희[13]는 재가노인의 외로움에 관한 연구에서 가족 기능이 낮고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외로움의 정도가 높다고 하였다. 김영주[14]의 연구에서는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의 우울수준이 건강한 노인에 비해 2배 이상 높다고 했다.

1.4 신체건강만족도

노인의 신체적 건강상태는 아무런 질병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질병이 있더라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을 방해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건강한 상태라고 했으며[15], 배상열외[16]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은 연령, 교육 상태, 수면시간, 스트레스, 만성질환 수, 주관적 건강인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1.5 경제생활만족도

생애단계(Life Stage)에서 경제 불안정의 위험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는 노년기이다. 이 시기에는 은퇴가

당연시되고, 소득중단 또는 제한적인 취업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김수정[17]은 경제적인 안정은 노년기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생활환경조건으로 보았다.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다수의 대규모 조사연구들이 학력이나 소득수준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이 삶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먼저 성별 면에서 남성노인과 여성노인 사이의 삶의 만족도에도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데 Berardo[18]는 남성노인에게는 건강과 직업이, 여자노인에게는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 했다. Culter[19]는 연령대별로 보았을 때에 55세에서 64세의 연령층에서는 건강이나 주거환경, 일에 대한 만족을 중요시하는데 비해 65세에서 74세 연령층대에서는 가족과 배우자에 대한 만족을 중시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위도 높아지고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보장책도 마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적 활동 폭 역시 넓어져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20]. 백은영[21]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만족할 확률이 1.5배 정도 더 높다고 하였으며 Culter[19]에 의하면 종교 활동은 개인에게 지역 사회의 소속감 및 공동체의식을 가지게 하여 삶의 의미를 찾는데 도움을 준다고 했다.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했으며 연소노인보다 고령노인에게 있어서 배우자의 유무는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졌다[22].

윤현숙과 유희정[23]은 가족관계가 성공적인 노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인구사회학적특성이 노인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으로 분석한데 비해서 본 연구에서는 영역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인구사회학적특성은 무엇이며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일상생활요인과 인구사회학적특성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지에 대해서 심층적으

로 분석하기로 했다.

3. 일상생활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서 일상생활에 주목하는 이유는 일상생활은 문자 그대로 일상의 활동내지는 날마다 지내는 평소의 생활을 의미하므로 개인의 생활전반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노인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보는 것에서부터 생산적인 일을 하는 등 활동을 통해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이 일상생활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일상생활은 개인과 사회를 연결시켜주는 영역인 동시에 사회로부터의 고립이 경험되는 영역이며, 문제로 인식되는 외로움, 두려움, 게으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일상생활을 수정하는 것이고 사회적 가치로 여겨지는 상호의존, 통합, 생산성이 성취되는 것도 일상생활에서 가능하다고 보았다[24]. 한경혜[25]는 일상의 맥락들이 노인들의 정서경험과 어떠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탐색하였으며, 노인의 일상생활의 구성과 그 과정에서 느끼는 정서적 경험은 노인이 처한 사회구조적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노인의 일상생활요인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일상생활요인을 사회적지지, 경제상태, 건강상태, 여가활동, 의사소통과 소비활동으로 도출하였다.

3.1 사회적지지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s)란 한 개인이 그가 가진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 자원을 의미하는데[26]사람들 간에 정서적 관심, 위로, 실질적인 도움, 이해 등의 교환을 통해 그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가치 있는 존재로서 존중받는다고 느끼며, 대화와 관계망 속에 속한 것으로 느끼게 된다. 이가영, 박태진[27]은 가족, 친구, 친척, 이웃 등의 사회적 지지가 높은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건강상태가 좋다고 했다.

3.2 경제상태

한편 노인은 실제 경제상태보다는 은퇴 등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따라서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노인 개개인의 빈곤하다고 느끼는 정도에 따른 주관적인 경제적 상태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소득의 절대 수준보다는 상대적인 상태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28].

3.3 건강상태

Knappy[29]는 삶의 만족도에 관한 예측 변수를 발견하기 위한 연구에서 건강, 활동, 사회경제적 변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측 변수는 건강이라고 하였으며, McClelland 와 Edwards[30]는 건강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노인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3.4 여가활동

서병숙과 김수현[31]은 노년기 여가활동과 삶의 만족간의 관계에서 노인의 여가활동의 참여정도가 높을수록, 가족(부부)과 함께 참여할 때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밝혔다. 최인근[32]은 노인들의 심리적 특성에 있어서도 여가활동 참여정도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3.5 의사소통

노년에는 신체활동의 둔화와 더불어 사회경제적 능력이 감소되고 활동의 폭도 좁아지며 퇴직과 함께 사회적 인간관계도 감소한다. 노인들은 배우자 및 주변인들의 죽음과 단독가구의 증가로 인해 대인관계의 범위가 축소되어 대화의 결핍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노년기 부정적인 복지감을 낮추기 위해서 부부 상호 간에 친밀감을 높이고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33]. 또한 부부간의 개방된 의사소통이 결혼생활에 중요한 서로간의 신뢰감을 키우게 되고 결혼만족도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연구된 바 있다[34].

3.6 소비활동

노인들이 자립적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고 있을 경우, 타

인과 사회에 경제적 의존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노년기에도 자립적 소비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의 고취 등, 긍정적 효과로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이론적 배경과 연구문제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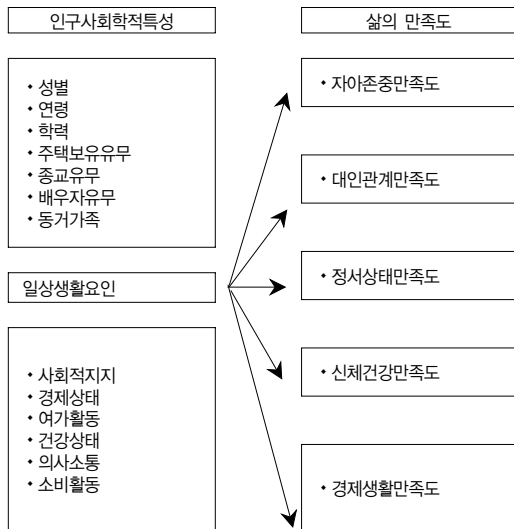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2. 자료 수집 및 분석

연구 대상은 경기도 지역의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2012년 1월10일부터 3월10까지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총 280부였으나 응답이 불성실한 22부를 제외하고 258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성분석 및 t-test, ANOVA,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증 방법으로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3. 측정도구

노년기 삶의 만족도의 영역별 변수는 자이존중만족도, 대인관계만족도, 정서상태만족도, 신체건강만족도, 경제생활만족도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변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노인들의 라이프스타일이 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권재일[35]이 사용한 설문 문항을 20문항으로 재구성 하였다.

일상생활요인은 사회적지지, 경제상태, 건강상태, 여가활동, 의사소통, 소비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변수들의 측정은 노년기 삶의 의 만족도 구조모형에서 한정화[36]등이 사용한 설문 등의 질문지를 26개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변수로는 성별, 연령, 학력, 주택 보유유무, 종교유무, 배우자유무, 동거가족을 측정하였다.

4. 연구대상의 특성

[표 1]은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과 연령, 학력, 주택소유 유무, 종교 유무, 배우자 유무 및 동거가족 등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97	37.6
	여성	161	62.4
연령	60-64세	50	19.4
	65-69세	69	26.7
	70-74세	78	30.3
	75세 이상	61	23.6
학력	무학	36	14.0
	초등학교 졸업	42	16.2
	중학교 졸업	68	26.4
	고등학교 졸업	80	31.0
	대학교 졸업이상	32	12.4
주택소유 유무	없다	105	40.7
	있다	153	59.3
종교 유무	없다	57	22.1
	있다	201	77.9
배우자 유무	없다	123	47.7
	있다	135	52.3
동거 가족	혼자 산다	75	29.1
	자녀와 산다	64	24.8
	부부끼리 산다	119	46.1

IV. 연구 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가정적으로 역할을 상실하게 되어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다[37]는 결과와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75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자신의 존중 및 대인관계와 정서상태, 신체건강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2. 일상생활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노인의 일상생활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1단계 모형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투입하고, 2단계 모형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일상생활요인을 동시에 투입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통제된 상태에서 일상생활요인의 상대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가 자아존중만족도, 대인관계만족도, 정서상태만족도, 신체건강만족도,

표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구분		자아존중 만족도			대인관계 만족도			정서상태 만족도			신체건강 만족도			경제생활 만족도		
		M	SD	t/F	M	SD	t/F	M	SD	t/F	M	SD	t/F	M	SD	t/F
성별	남성 (n=97)	3.11	.79	-1.78	3.28	.76	-1.19	3.35	.81	0.84	2.83	.91	-0.32	2.80	.73	1.49
	여성 (n=161)	3.28	.74		3.40	.85		3.26	.81		2.86	.82		2.65	.79	
연령	60-64세 (n=50)	3.08	.33	8.58*** a)b	3.22b	.57	7.45***	3.00b	.42	4.49** a)b	2.98a	.50	6.99*** a)b	2.66	.51	0.44
	65-69세 (n=69)	3.04	.71		3.15b	.69		3.25ab	.74		2.50b	.75		2.73	.68	
	70-74세 (n=78)	3.14	.87		3.30b	.87		3.52a	.90		2.85ab	.94		2.77	.90	
	75세 이상 (n=61)	3.63	.79		3.77a	.93		3.31ab	.94		3.14a	.96		2.64	.87	
학력	무학 (n=36)	3.21ab	1.02	4.49** a)b	3.09c	1.08	6.16*** a)b/c	3.55a	.78	3.67** a)b	2.73b	.85	4.27** a)b	2.09c	.73	13.98*** a)b
	초졸 (n=42)	3.47ab	.91		3.76a	.90		3.50ab	1.10		2.95ab	1.04		2.57b	.99	
	중졸 (n=68)	3.04b	.52		3.21bc	.64		3.02b	.66		2.67b	.78		2.61b	.54	
	고졸 (n=80)	3.10ab	.62		3.26ab	.67		3.31ab	.72		2.80b	.79		2.94ab	.70	
	대졸 이상 (n=32)	3.57a	.82		3.70ab	.81		3.30ab	.75		3.37a	.71		3.21a	.48	
주택소유유무	없다 (n=105)	3.01	.78	-3.66***	3.18	.83	-2.91**	3.21	.84	-1.36	2.73	.86	-1.87	2.32	.81	-7.36***
	있다 (n=153)	3.36	.72		3.48	.79		3.35	.78		2.93	.85		2.98	.61	
중요교과목유무	없다 (n=57)	2.78	.84	-5.16***	2.95	.84	-4.38***	3.50	.85	2.18*	2.60	.94	-2.47*	2.40	.91	-3.50**
	있다 (n=201)	3.34	.69		3.47	.78		3.24	.79		2.92	.82		2.80	.70	
배우자유무	없다 (n=123)	3.21	.82	-0.18	3.31	.87	-0.93	3.28	.86	-0.28	2.88	.82	0.47	2.49	.84	-4.58***
	있다 (n=135)	3.23	.71		3.40	.77		3.31	.77		2.82	.89		2.91	.64	
동거가족	혼자 산다 (n=75)	3.10b	.85	4.27* a)b	3.22b	.96	3.54* a)b	3.23	.95	1.01	2.78b	.86	4.74** a)b	2.36b	.88	13.61*** a)b
	자녀와 산다 (n=64)	3.45a	.76		3.58a	.76		3.42	.87		3.13a	.90		2.72a	.74	
	부부끼리 산다 (n=119)	3.17ab	.68		3.33ab	.73		3.28	.66		2.74b	.80		2.92a	.62	

*p<.05, **p<.01, ***p<.001

경제생활만족도의 5개 요인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이들 각각을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1 일상생활요인이 자아존중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일상생활요인이 자아존중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일상생활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자아존중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일상생활요인이 자아존중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단계	1단계		2단계	
		β	t	β	t
인구 사회학적 특성	성별 ¹⁾	.155	2.188*	.095	1.398
	연령	.235	3.287**	.115	1.657
	학력	-.073	-0.996	-.149	-1.912
	주택소유 유무 ²⁾	.133	2.074*	.063	1.006
	종교 유무 ³⁾	.260	4.218***	.219	3.742***
	배우자 유무 ⁴⁾	.001	0.005	-.092	-0.849
	동거가족 ⁵⁾				
	- 동거가족1	.043	0.569	.013	0.171
	- 동거가족2	.044	0.345	.141	1.131
일상 생활 요인	사회적 지지			.329	5.740***
	경제상태			-.030	-0.494
	건강상태			-.097	-1.598
	여가활동			.194	3.210**
	의사소통			.052	0.919
	소비활동			.019	0.324
	F	6.749***		7.532***	
	R ²	.178		.303	
ΔR^2			.125		

* $p < .05$, ** $p < .01$, *** $p < .001$

1단계에서 투입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포함한 회귀 모형의 F 통계 값은 6.749로서 $p < .001$ 에서 유의하였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 학력과 배우자 유무, 동거 가족을 제외한 성별($t=2.188, p < .05$), 연령($t=3.287, p < .01$), 주택소유 유무($t=2.074, p < .05$), 종교 유무($t=4.218, p < .001$)가 자아존중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종교가 있고 연령이 높으면서 여성이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일수록 자아존중 만족도가 더욱 높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2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함께 일상생활요인을 투입한 결과 회귀모형의 F 통계값이 7.532로 $p < .001$ 에서 유의하였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는 종교 유무($t=3.742, p < .001$)만이 자아존중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고, 일상생활요인 중에서는 사회적 지지($t=5.740, p < .001$)와 여가활동($t=3.210, p < .01$)이 정(+)적 영향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자아존중 만족도의 경우 일상생활요인의 경제상태나 건강상태, 의사소통 및 소비활동은 영향요인이 아닌 반면, 사회적 지지와 여가활동은 영향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타인으로부터 받는 수용 및 관심과 애정이 감소되는 경우 자존감이 감소된다[38]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3-1(노인의 일상생활요인은 자아존중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2.2 일상생활요인이 대인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표 4]는 일상생활요인이 대인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일상생활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대인관계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1단계에서 투입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포함한 회귀 모형의 F 통계 값은 3.000으로 $p < .01$ 에서 유의하였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 학력과 주택소유 유무, 배우자 유무, 동거 가족을 제외한 성별($t=1.976, p < .05$), 연령($t=3.037, p < .01$), 종교 유무($t=2.413, p < .05$)가 대인관계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력을 보였고, 이들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연령($\beta=.228$), 종교 유무($\beta=.157$), 성별($\beta=.148$)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2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함께 일상생활요인을 투입한 결과 회귀모형의 F 통계값이 6.011로서 $p < .001$ 에서 유의하였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 종교 유무($t=1.966, p < .05$)가 대인관계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고, 일상생활요인 중에서는 사회적 지지($t=6.569, p < .001$)와 건강상태($t=2.073, p < .05$), 여가활동($t=3.472, p < .01$)이 정(+)적 영향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표 4. 일상생활요인이 대인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단계	1단계		2단계	
		β	t	β	t
인구 사회학적 특성	성별 ¹⁾	.148	1.976*	.075	1.071
	연령	.228	3.037**	.107	1.489
	학력	.082	1.072	-.118	-1.462
	주택소유 유무 ²⁾	.000	0.003	-.058	-0.890
	종교 유무 ³⁾	.157	2.413*	.119	1.966*
	배우자 유무 ⁴⁾	.189	1.634	.143	1.280
	동거가족 ⁵⁾				
	- 동거가족1	-.023	-0.295	-.110	-1.440
	- 동거가족2	-.117	-0.877	-.118	-0.915
	일상생활요인	사회적 지지			.389
경제상태				.052	0.841
건강상태				.130	2.073*
여가활동				.217	3.472**
의사소통				.104	1.776
소비활동				.026	0.443
F		3.000**		6.011***	
R ²		.088		.257	
ΔR^2			.169		

* $p < .05$, ** $p < .01$, *** $p < .001$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대인관계 만족도의 경우 일상생활요인의 경제상태와 의사소통, 소비활동은 영향요인이 아니지만, 사회적 지지와 여가활동 및 건강상태는 영향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대인관계의 상황에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39]는 연구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3-2(노인의 일상생활요인은 대인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2.3 일상생활요인이 정서상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일상생활요인이 정서상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일상생활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정서상태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1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결과 회귀모형의 F 통계값은 2.507로서 $p < .05$ 에서 유의하였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 종교 유무($t = -2.615$, $p < .01$)만이 정서상태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쳐

표 5. 일상생활요인이 정서상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단계	1단계		2단계	
		β	t	β	t
인구 사회학적 특성	성별 ¹⁾	-.082	-1.087	-.117	-1.527
	연령	.048	0.637	.010	0.124
	학력	-.142	-1.834	-.223	-2.772**
	주택소유 유무 ²⁾	.078	1.139	.055	0.778
	종교 유무 ³⁾	-.171	-2.615**	-.172	-2.612**
	배우자 유무 ⁴⁾	-.002	-0.018	-.028	-0.227
	동거가족 ⁵⁾				
	- 동거가족1	.066	0.827	.020	0.237
	- 동거가족2	.011	0.080	-.034	-0.245
	일상생활요인	사회적 지지			.080
경제상태				.115	1.706
건강상태				.111	1.619
여가활동				.085	1.250
의사소통				.144	2.277*
소비활동				-.038	-0.557
F		2.507*		2.385**	
R ²		.075		.121	
ΔR^2			.046		

* $p < .05$, ** $p < .01$

종교가 없는 노인일수록 자신의 정서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더욱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2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함께 일상생활요인을 투입한 결과 회귀모형의 F 통계값이 2.385로 $p < .01$ 에서 유의하였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는 학력($t = -2.772$, $p < .01$), 종교 유무($t = -2.612$, $p < .01$)가 정서상태 만족도에 대해 부(-)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 이들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학력($\beta = -.223$), 종교 유무($\beta = -.172$)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즉, 학력이 낮고 종교가 없는 노인일수록 자신의 정서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200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우울상태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게 나온 것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일상생활요인 중에서는 의사소통($t = 2.277$, $p < .05$)만이 정서상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라 주변사람들과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노인들은 자신의 정서상태에 더욱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정서상태만족도에 대한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12.1%로서 1단계보다 4.6% ($\Delta R^2 = .046$)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정서상태만족도에 대해서

는 일상생활요인의 의사소통만이 영향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3-3(노인의 일상생활요인은 정서상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2.4 일상생활요인이 신체건강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일상생활요인이 신체건강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일상생활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정서상태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1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결과 회귀모형의 F 통계값은 1.785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 학력($t=-2.615, p<.01$)만이 신체건강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 학력이 높은 노인일수록 자신의 신체건강에 대한 만족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었다. 그러나 1단계 회귀모형의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신체건강 만족도에 대한 요인의 전체 설명력이 5.4%로서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결과를 확대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2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함께 일상생활요인을 투입한 결과 회귀모형의 F 통계값이 8.221로서 $p<.001$ 에서 유의하였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는 동거 가족2($t=-2.772, p<.01$)가 신체건강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부부끼리 살고 있는 노인일수록 신체건강 만족도가 더욱 낮아지고 있었다. 일상생활요인 중에서는 경제상태와 의사소통, 소비활동을 제외하고 사회적 지지($t=4.554, p<.001$), 건강상태($t=7.039, p<.001$), 여가활동($t=5.414, p<.001$)이 신체건강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고, 이들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건강상태($\beta=.423$), 여가활동($\beta=.323$), 사회적 지지($\beta=.258$)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신체건강 만족도의 경우 일상생활요인의 경제상태와 의사소통, 소비활동은 영향요인이 아니지만, 사회적 지지와 여가활동 및 건강상태는 영향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노인의 신체적 건강상태는 정신적, 사회적 기능을 방해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경우라는 이론과 공통점이 있다고

여겨진다[40].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3-4(노인의 일상생활요인은 신체건강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표 6. 일상생활요인이 신체건강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단계	1단계		2단계	
		β	t	β	t
인구 사회학적 특성	성별 ¹⁾	-.029	-0.379	-.077	-1.144
	연령	.028	0.369	-.017	-0.248
	학력	.196	2.503 [*]	-.123	-1.603
	주택소유 유무 ²⁾	-.016	-0.234	-.070	-1.122
	종교 유무 ³⁾	-.011	-0.166	-.063	-1.095
	배우자 유무 ⁴⁾	.014	0.118	.177	1.651
	동거가족 ⁵⁾				
	- 동거가족1	.068	0.838	-.055	-0.747
- 동거가족2	-.157	-1.155	-.210	-2.519 [*]	
일상 생활 요인	사회적 지지			.258	4.554 ^{***}
	경제상태			.110	1.860
	건강상태			.423	7.039 ^{***}
	여가활동			.323	5.414 ^{***}
	의사소통			-.121	-2.170
	소비활동			.109	1.930
F		1.785		8.221 ^{***}	
R ²		.054		.321	
ΔR^2				.267	

* $\alpha<.05$, *** $\alpha<.001$

2.5 일상생활요인이 경제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표 7]은 일상생활요인이 경제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1단계에서 투입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포함한 회귀모형의 F 통계값은 16.125로 $p<.001$ 에서 유의하였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 성별과 종교 유무, 배우자 유무, 동거 가족1을 제외하고 연령($t=2.266, p<.05$), 학력($t=6.623, p<.001$), 주택소유 유무($t=3.957, p<.001$), 동거 가족2($t=2.135, p<.05$)가 경제생활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들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학력($\beta=.432$), 주택소유 유무($\beta=.228$), 연령($\beta=.145$), 동거 가족2($\beta=.143$)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2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함께 일상생활요인을 투입한 결과 회귀모형의 F 통계값이 29.041로 $p<.001$ 에서 유의하였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는 학력($t=4.919, p<.001$), 주택소유 유무($t=4.096, p<.001$)가 경제생활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 이중에서도 주택소유 유무($\beta=.209$)에 비해 학력($\beta=.281$)의 상대적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일상생활요인 중에서는 경제상태($t=11.088, p<.001$)와 의사소통($t=7.377, p<.001$)이 정(+)^적 영향요인인 반면, 소비활동($t=-2.186, p<.05$)은 부(-)^적 영향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경제상태($\beta=.487$), 의사소통($\beta=.305$), 소비활동($\beta=-.122$)의 순으로 컸으며,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62.6%로서 1단계보다 28.5%($\Delta R^2=.285$)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경제생활 만족도의 경우 일상생활요인의 사회적 지지와 건강상태 및 여가활동은 영향요인이 아니지만, 경제상태와 의사소통, 소비활동은 영향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소득의 상태가 노인의 구매활동을 좌우하는 연구[41]와 일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3-5(노인의 일상생활요인은 경제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표 7. 일상생활요인이 경제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단계	1단계		2단계	
		β	t	β	t
인구 사회 학적 특 성	성별 ¹⁾	.111	1.749	.038	0.769
	연령	.145	2.266*	.096	1.878
	학력	.432	6.623***	.281	4.919***
	주택소유 유무 ²⁾	.228	3.957***	.209	4.096***
	종교 유무 ³⁾	-.025	-0.451	-.015	-0.339
	배우자 유무 ⁴⁾	.025	0.254	-.057	-0.722
	동거가족 ⁵⁾				
	- 동거가족1	.034	0.501	-.014	-0.257
	- 동거가족2	.143	2.135*	.104	1.142
	일 상 생 활 요 인	사회적 지지			.062
경제상태				.487	11.088***
건강상태				.069	1.538
여가활동				.018	0.410
의사소통				.305	7.377***
소비활동				-.122	-2.186*
F			16.125***		29.041***
R ²			.341		.626
ΔR^2				.285	

* $p<.05$, ** $p<.01$, *** $p<.001$

V. 결론

본 연구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일상생활요인에 관한 연구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서 부분적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일상생활요인과 삶의 만족도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사회적 지지는 여가활동, 의사소통, 자아존중만족도, 대인관계만족도, 신체건강만족도와 경제생활만족도에 상당한 관련성을 보였다. 이외에 경제상태, 여가활동, 그리고 의사소통 등에서도 강한 상관성이 있었다.

셋째, 일상생활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만족도는 일상생활요인의 사회적 지지와 여가활동이 영향요인이었으며 대인관계만족도는 사회적지지, 여가활동 및 건강상태가 영향요인으로, 정서상태만족도는 의사소통만이 영향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체건강만족도는 사회적 지지, 여가활동 및 건강상태가 일상생활요인으로 그리고 경제생활 만족도는 경제상태, 의사소통 및 소비활동이 일상생활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중년의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만족의 하위변인들이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거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면 본 연구는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일상생활요인이 삶의 영역별만족도 즉 자아존중만족도, 대인관계만족도, 정서상태만족도, 신체건강만족도 및 경제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이와 같이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로 영역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측정함으로써 영역별 삶의 만족도 측정이 가능하다.

둘째, 노인의 일상생활요인을 도출하여 이들을 영역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일상생활요인이 자아존중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상태나 건강상태, 의사소통 및 소비활동은 영향요인이 아닌 반면, 사회적 지지와 여가활동은 영향요인인 것으로 분석되

었다. 대인관계 만족도와 신체건강만족도의 경우 사회적지지, 여가활동 및 건강상태가 영향요인이었고, 정서상태만족도는 의사소통, 경제생활 만족도는 경제상태, 의사소통 및 소비활동이 영향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일상생활요인별로 자아존중만족도, 대인관계만족도, 정서상태만족도, 신체건강 만족도 및 경제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개인별 영역별 만족도의 측정 시 일상생활 요인별 강약점을 분석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가능하다.

셋째,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하지 못한 일상생활요인과 영역별 만족도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은 추후 상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인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노인복지실천과 일상생활요인별 세부적인 영역별 만족도 관별로 향후 노인복지정책 수립,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 운용 및 노인상담에서 보다 세밀한 적용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노인의 일상생활요인이 영역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다만 본 연구의 대상이 경기도 지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전국 규모 또는 농어촌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WHO, 2011.
 [2] 권중돈, 조주연,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요인”, 한국노년학, 제20권, 제3호, pp.61-76, 2000.
 [3] 정명숙, “우리나라 노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 : 시설노인과 일반노인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제20권, 제2호, pp.145-169, 2007.
 [4] 박기남, “노년기 삶의 만족도의 성별 차이”, 한국노년학, 제22권, 제1호, pp.13-29, 2004.

[5] D. Felce and J. Perry, *Quality of life: Its Definition and Measurement* in R.I. Brown(Ed), 1997.
 [6] 정명숙, “노년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국노인복지학회, 통권, 제37호, pp.249-274, 2007.
 [7]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2 - 128호
 [8] S. Coopersmith,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Cal. : W.H.Freeman Co. pp.1-7, 1976
 [9] 김남희, 최수일, “여성노인의 신체적·사회적특성이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1호, pp.241-252, 2011.
 [10] F. Hider,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New York : John Wiley & Sona. Inc), Vol.1, 1964
 [11] 서혜석, *P.E.T를 활용한 집단 프로그램이 손자녀 양육 조부모의 대인관계 향상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논문, 2005,
 [12] L. A. Peplau and D. Perlman, *Perspectives on loneliness*. In L. A. Peplau, & D. Perlman> *Loneliness : A source 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pp.1-8, 1982.
 [13] 김옥수, 백성희, “노인의 외로움과 사회적지지, 가족기능간의 관계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제33권, 제3호, pp.425-432, 2003.
 [14] 김영주, 농촌사회, 제20집 제1호, pp.265-308, 2010.
 [15] K. S. You and H. S. Park, “Comparison of health status between senior people living alone and those who live with their families,” J.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23, No.4, pp.163-179, 2003.
 [16] 배상열, 고대식, 노자숙, 이병훈, 박형수, 박종, “한국노인의 신체활동과 건강관련 삶의 질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10호, pp.255-266, 2010.
 [17] 김수정, *노인의 소득지위에 따른 삶의 만족도 영*

- 향요인 분석, 박사학위논문, 2007.
- [18] F. M. Berardo, Decade Review ; Family Research NCFR. Vol.209, 1980.
- [19] N. E. Culter, "Aged variations in the dimensionality of life satisfaction," J. of Gerontology, Vol.34, 1979.
- [20] 박은숙, "노인의 건강증진 행위 및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간호학회지, 제28권, 제3호, pp.638-649, 1998.
- [21] 백은영, "은퇴자의 은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노인복지학회, 통권 제44호, pp.345-372, 2009.
- [22] 김희주, 주경희, "한국적 성공적 노후적도를 활용한 노인의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통권 제41호, pp.125-158, 2008.
- [23] 윤현숙, 유희정, "성공적 노화여부에 따른 중요 생애사건 비교분석", 한국노년학, 제27권, 제4호, pp.807-827, 2007.
- [24] K. Altegott, *Daily Life in Later Life*, California : Sage Publications, Inc, 1989.
- [25] 한경혜, "인구의 고령화와 가족생활", 생활과학 연구, 제22권, pp.119-126, 1997.
- [26] S. Cohen and H. M. Hoberman,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13, pp.79-125, 1983.
- [27] 이가영, 박태진, "농촌지역노인들의 사회적 지지와 건강상태의 관련성", 가정의학회지, 제21권, 제1호, pp.672-683, 2006.
- [28] 박경란. 노년여성의 생활만족도 연구, 박사학위 논문, 1988.
- [29] M. Knappy, "Predicting the Dimension of Life Satisfaction," J. of Gerontology, p.79, 2005.
- [30] K. A. McClelland, "Self-conception and satisfaction": Integrating aged sub-culture and activity theory. J. of Gerontology, Vol.36, pp.723-732, 1982; J. Edwards,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 Reexamination. J. of Gerontology, Vol.28, pp.497-502, 1973.
- [31] 서병숙, 김수현, "노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 한국노년학, 제20권, 제1호, pp.55-67, 2000.
- [32] 최인곤, 노인의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2008.
- [33] 조혜숙, 최수일, "노년기 부부관계 요인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11호, pp.313-328, 2011.
- [34] 송시내, 결혼생활 만족과 부부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1999.
- [35] 권재일, 노인들의 라이프스타일이 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2001.
- [36] 한정화, 노년기 삶의 만족도 구조모형, 박사학위논문, 2010.
- [37] 최외선,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일반노인과 노인대학 노인의 비교", 인문연구, 제10권, 제2호, pp.213-236, 1989.
- [38] 박현숙, 집단 인지요법이 노인의 우울, 자아존중감, 고독감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논문, 1993.
- [39] 남상철, 유영달, "부모와 자녀의 양육태도 지각 및 대학생의 자아분화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2권, 제2호, pp.51-75, 2007.
- [40] K. S. You and H. S. Park, "Comparison of health status between senior people living alone and those who live with their families," J.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23, No.4, pp.163-179, 2003.
- [41] N. H. Miller and Pertich, "elderly consumers: problems and behaviors," J.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 10(March), pp.45-50, 1986.

저 자 소 개

리 해 근(Hae-Gun Rhee)

정회원



- 2008년 8월 : 서울벤처정보대학원(상담학 석사)
- 2012년 2월 : 호서대학교 박사수료(노인복지학과)
- 2012년 3월 ~ 현재 : 협성대학교 외래교수

<관심분야> : 노인복지, 노인상담, 노인교육

하 규 수(Kyu-Soo Ha)

정회원



- 1998년 6월 : 미국 Touro 법과전문대학원 졸업(J.D.)
- 1999년 6월 : 미국 Georgetown 법과전문대학원 졸업(LL.M.)
- 1998년 8월 : 미국 뉴욕주변호사
· 미국 연방변호사

- 2009년 2월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박사)
- 2002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벤처경영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창업, 벤처, 경영전략, 실버경영